

# 직장·직능단체 IMF극복 수련회 '봄'

- 금융단체지원 관악산 연주암서 철야정진**
- 나우누리불동 도리사 찾아 참선·수계식**
- 불자교정인련 직지사서 재소자 포교 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직장·직능단체의 수련회들이 늘고 있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행정진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름수련대회 계획을 발표한 단체는 전국금융단체불교연합회, 나우누리 부처님나라, 천리안불교동호회, 전국

불자교정인련협회, 금융결제원불자회 등이다. 전국금융단체불교연합회(회장 하용이)는 11~12일 관악산 연주암에서 수련대회를 갖는다. 금융인불자들은 11일 오후 5시까지 관악산을 등반한 뒤 연주암에서 철야정진기도 및 참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용이회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단체들이 합동으로 수행정진 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398-6164 이충훈간사. 나우누리 부처님나라(회장 허무룡)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3일간 경북 선산 도리사에서 여름수련대회를 연다. 이번 수련회에는 참선 및 철야정진 순으로 진행되며 수계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불자교정인련협회(회장 오희창)도 4~5일 수행을 통해 교정인불자들의 증후와 발전을 모색하는 임원수련대회를 김천 직지사서 개최한다. 수련대회에는 전국 4개지부 32개지회 1백20여명이 참석한다. 또 금융결제원불자회(회장 조화



◇유니텔동호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설 2주년기념 수련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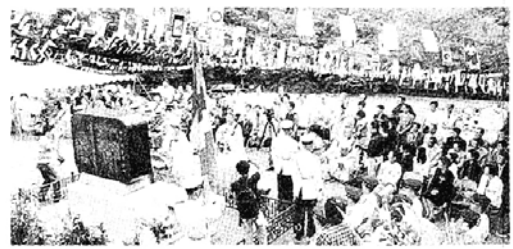
제)와 천리안 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업)는 7월말에서 8월초 수련대회를 열기로 했다. 금융결제원불자회는 이천 영일사에서, 천리안불교동호회는 '아미타불'을 주제로 금산사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니텔불교동호회(회장 김희

정)는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0~2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설 2주년 기념 수련대회를 가졌다. 이어 해정스님(법주사 율주)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산내암지도 순례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동화사주지 성덕스님 진산식

대구 동화사는 6월22일 대웅전에서 제23대 주지 성덕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진제 동화사조실, 성수·도원 조계종 원로위원장,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노태우 前대통령, 문화갑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최희원 대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덕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동화사를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주역 교구본사로 자리매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사 차일혁총경 공적비 제막

구례 화엄사(주지 종영)는 6월21일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유족신도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에서故 차일혁총경 공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차일혁총경은 6·25당시 남부군 토벌작전에 참가해 발치산의 근거지를 초토화하려는 상부지대에 화엄사 각황전의 문짝만 때어내 불태우는 등 천은사, 백양사, 쌍계사 등의 소실을 막아낸 바 있다.



극락암 경봉스님 16주기 다례제

양산 통도사 극락암(주지 명정)은 21일 경봉스님 입적 16주기 다례제를 봉행했다. 경봉스님이 정진하던 투골인 삼소골 중수회향법회도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서 명정스님은 "삼소골의 중수불사는 단순히 투골의 중수일뿐 아니라 큰스님의 뜻을 기리고 받드는 것"이라고 불사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날 월하스님, 창하스님, 월파스님 등 영축총림 문도들과 신도 3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제15기 행자 사전교육

조계종교육원(원장 압도)은 25일 직할교구 제15기 행자 사전교육을 성북동 길상사 수련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사전교육은 신체검사와 연수국장 경진스님의 지도로 불공음의, 교육국장 정혜스님의 기본승의와 발우공양 교육 등과 기초교리와 승가의 삶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이날 사전교육에는 남행자 10명, 여행자 25명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 우리 모임에선

### 전북불교대 청년회 창립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개교 10주년을 맞아 청년회를 창립한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창립준비위는 7월내로 창립대회를 갖기로 했다. 청년회는 창립과 함께 '강건기 학장과의 대화시간' '경정실기' '한자공부'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0652)226-7878

### 세무사불자회 명찰순례



세무사불자회(회장 송호승)는 13~14일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선운사 송광사 위봉사 내소사 등 전북지역으로 사찰순례(사진)를 다녀왔다.

선운사 도솔암 법회에서 도솔암주 선진스님은 "시대가 어려울 때 일수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은 법당에서 참선 및 철야정진기도를 실시했다.

### 천리안 미륵불교모임 탄생

천리안 통신에 미륵불교모임이 생겼다. 이 동아리는 개시관 동호회/팬클럽에서 92번 모임마당으로 들어간 뒤 24번 종교란에 있다. 종교란에서는 18번 미륵불교모임을 선택하면 된다.

미륵불교모임에는 '시와 명상' '일일편주' '법문 듣는 법' '대화방' '알고싶어요' 등의 코너가 있다.



금융결제원 불자회 자광원 효도잔치

금융결제원불자회(회장 조희재)는 6월 20일 부처님마를 성남 자광원에서 효도잔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결제원 고적 담사비만 '소리길' 전체 여직원 모임인 '한결'도 함께 참가하여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댄스 및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 전국교사불자 내달 8~10일 연수

조계종포교원이 개최하는 제4회 전국교사불자연수회가 8월 8~10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소개, 108배 및 참선, 분과 토의, 불교학살회 운영사례 발표와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영·정조시대의 문화예술'(최

영수 간송미술연구소장),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사상'(고유익 교법사단장), '불교의 세계관'(압도 조계종교육원장), '현대인과 선'(성타 포교원장), '불교의 상담원리'(용타 동사법회주). 참가희망자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02)720-7060.

## 제8교구 교사불자연합 태동 회원 120명...회장 조봉연씨

상주 문경 구미 직지사(김천)교사불자회 등 직지사 관할구역내의 4개 교사불자회를 아우르는 '제8교구 교사불자연합'이 지난 20일 출범했다. 4개 교사불자회 20여 임원들은 이날 직지사서 창립식을 갖고 회장에 조봉연교감(김천능남중, 직지사교사불자회

장)을, 부회장에 나머지 3개 교사불자회장을 각각 추대했다. 1백20여명의 교사불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합회'는 합동법회 개최 및 상호교류를 통해 침체되고 있는 교사불자회와 불교학살회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8교구 교사불자연합은 8월1일부터 3일까지 직지사서 수련대회겸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북지부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 간병봉사로 포교하는 '하얀연꽃'

### 탐방 백련선우회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마음이 아픈이들을 도닥겨주는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곳. 바로 백련선우회(회장 성태웅)이다. 백련선우회는 2주년을 맞아 4일 김상사에서 2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기약하게 된다.

지난 96년 6월 22일 우리는 선운의 산하단체로 시작된 백련선우회는 간병봉사, 무료안구시술, 무료장례서비스 등 임종 및 장례에 관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 회원은 50여명. 대부분이 여성불자로 구성돼 있으며 저마다 각각 인연을 따라 개인으로 또는 여

연습등 전통의식 공부 무의탁노인 장례서비스도 회원 50여명...대부분 여성

릿이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무료안구시술을 한차례 성사시킨 바 있으며, 무의탁노인 등 어려운 이들의 장례서비스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백련선우회는 회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여법한 활동을 위해 별도의 법요집을 제작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장종동 우리 선운 법당에서 의식공부도 한다. 목탁치는 법, 요령 혼드는 법,



◇선우법당에서 서로의 봉사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회원들.

염불과 경전독수, 염승 등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스스로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 이는 곧 백련선우회의 활동이 단순한 간병이나 장례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신적 위안까지 제공하는 힘을 갖게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의식교육 외에도 사찰을 찾아 회원

들이 함께 수련회도 갖고 있다. 성태웅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간병, 장례 봉사활동을 통해서 불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 무량사 관음라한전 건립불사 권선문

삼국유사 끝부분에 (대성효 이세부모 大城孝 二世父母)란 항목이 있습니다. 신라의 김대성은 보시하여 얻은 인연공덕으로 신라의 제왕인 김문량(金文亮)집에 태어나 성장하여 현생부모와 전생부모를 모시고 현생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짓고 전생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지었다는 기록입니다.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스님(1206~1289)께서 계승을 지어 찬탄했습니다. 이처럼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대성에 대한 이야기는 인과업보가 불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덕을 지으면 그 과보가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대성도 받을 시주하고 바로 재상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역사에 길이남을 뜻깊은 불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구촌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이들이 찾아드는 명소지요.

아득한 옛적에 이룬 불사지만 현실에도 계속 작복하는 무량의 복락입니다. 민족의 문화유산은 물론이요, 유네스코 국제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이 사바의 연꽃이 되어 세계생생 무량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관음라한전 건립불사는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대자대비시의 발로로 관세음 보살님을 원불(願佛)로 오백백한(재대성중)님들을 모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중생을 교화하고 구원하는 성지 기도도량을 장엄코져 하옵니다. 불전을 장엄 가람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단월들이 작복의 좋은 기회를 삼아 자기 동참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귀 복덕이 구족한 과보를 얻게 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여! 관음라한전 건립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자자손손 무량공덕 해가 되고 이고득락 하시기를 양원하나다.

● 창건 공덕주를 모십니다. ●  
귀의 삼보하옵고  
영양 백련산 무량사는 청산관음대성 진신이 상주하는 관음기도 도량으로서 영양군읍 입구 산성 아래 삼만여평에 이르는 입야에 천삼백평의 종교부지에 요사채, 지장전 영가단, 무량수전, 사천왕문이 전통의 건축양식으로 세워져 있고 그동안 선남자 선여인 등이 기도정진하여 서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어 모든분들이 기도정진하려고 하나 객실이 없어 안타까워 하던중이며 영양군·읍 소재지와 27리정도 거리이며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포교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무량사에 객실 대중선방을 건립하고 남골당을 신축하는 등 현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사에 사부대중들은 상의하여 무량사의 제2의 창건불사라고 할 수 있는 대작 불사에 창건공덕주를 모시고자 합니다.  
영양읍은 첩첩산중 두메산골에 있는 작은 읍으로 이조시대의 현감이 부임하려 영양현 입구 송원당을 돌아갈 때 타고 있던 말발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아 말에서 내려 이 도량을 보고 삼배를 올리고 나서야 말이 움직여 현감이 부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인근에 있는 불자들에게는 청산관음진신이 상주하시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래가 있는 무량사에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장엄의 원력을 세우고 창건 공덕을 지어 평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건공덕주가 되시면 평생위패를 모시고 주지스님들 대대로 제사를 모셔 드리는 것이 사찰이 정하는 법도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마음의 고향 오셔서 무량사의 현상을 살펴 보시고 선근공덕의 대원을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 ◆ 관음·라한전 건립/불/사

담	집	9,500만원	오	방	보	300만원	27개	집	차	30만원	450개	수	장	목	20만원	50개			
불	단	8,000만원	기	동	방	500만원	167개	집	로	5만원	950개	문	(꽃	실)	300만원	32짝			
상	항	도리	1,000만원	조	방	150만원	167개	수	소	400만원	47개	주	춧	돌	300만원	16개			
마	루	경	시	일	석	6,000만원	평	방	200만원	167개	사	례	100만원	47개	지	봉	등	500만원	2개
대	돌	보	2,000만원	장	여	30만원	907개	현	진	목	30만원	200개	상	외	10,000원	3,500장			
단	보	300만원	47개	장	폭	여	20만원	300개	현	진	목	200개	삼	준	보	7,000만원			
덕	방	보	700만원	도	리	100만원	507개	용	진	두	450만원	67개	오	백	리	한	50만원	527리	한

佛紀 二五四二年(丁丑) 六月 日  
韓國佛教無量寺 觀音羅漢殿 建立委員會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2동 산1번지  
☎ 0574)683-2879  
無量寺 住持 華戒 合掌